

## ‘번역’되는 제국의 언어와 식민지 이중언어체제에의 도전\*

김희경\*\*

### 요약

이 글은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호명하고 있는 한국 근대 소설들은 과연 그 자체로 ‘리얼리티’를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한국 근대문학과 리얼리즘에 대한 물음을 보다 정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식민지기 ‘언어’의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어/일본어 이중언어 발화 장면과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사용 문제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언제나 이중언어적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식민지의 언어 사용은 분명히 단일언어 정책을 통해 규정될 수 없었으며, 이는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의 ‘대화 공간’이 필연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인/일본인의 거주 공간이 명백히 분리되어 이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마주칠 수 없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벗어나, 문자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제도로서’ 기입되고 있는 일본어와 여전히 ‘모국어로서’ 존립하고 있는 조선어 사이의 언어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이중언어 대화 공간에서의 발화 주체는 조선어/일본어 언어장에 상호 침투하여 식민지배자-일본인과 피식민자-조선인 사이의 위계질서를 교란·

\* 이 논문은 현대소설학회 제54회 전국학술대회(2018.10.27)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위협·전복하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식민지 이중언어 대화 공간에서 권력 담지자 일본인, 혹은 모방자-조선인 모두 제국의 언어(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주제로 목격되며, 식민지의 모어(조선어)를 말할 수 있는 식민지배자 일본인 역시 발견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피는 것은 이 시기 소설에 나타난 일본어 발화 서술 장면의 번역 문제와 연관되어 보다 흥미로운 시각을 도출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제시기 염상섭의 소설들은 식민지 언어 사용의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그러면서도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이는 더 나아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일본(인) 표상의 문제와도 맞닿아있는 것으로서, 식민지배자-일본(인)을 ‘말해질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는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염상섭에게 언어의 문제란 식민지배의 현실을 감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 중 하나로 기능했을 것이라 판단 가능하다.

주제어: 염상섭, 이중언어, 번역, 문학의 리얼리티, 대화 공간

## 목차

1. 서론
2. 식민지 이중언어체제와 번역되는 제국의 언어
3. 기입되는 일본어 ‘번역’ 행위와 감각되는 민족 정체성
4. ‘보여지고·들리고·말해지는’ 제국의 언어와 교란되는 식민지의 언어질서
5. 결론을 대신하며: 일본어-전유 공간의 창출과 현실 인식의 후퇴

## 1. 서론

이 글은 지극히 단순한, 그러나 지금까지 질문되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의문점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호명하고 있는 한국 근대 소설들은 과연 그 자체로 ‘리얼리티’를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이다. 이러한 질문은 한국문학사에서 (무)의식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과 그 판단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리얼리즘 문학’이라는 레테르가 실상은 우리에게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담론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리얼리티’는 그 자체의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쉽게 규정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리얼리티는 단순히 사회현실과 주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재현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총체성 포착 및 문학적 전망의 수립에 관한 특정 글쓰기 방식이 보편타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호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sup>1)</sup> 그런데 이와 같은 리얼리티의 성격에 관한 논의를 한국 근대문학, 특히 리얼리즘적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는 작품들에 적용해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문학과 현실 사회의 리얼리티를 매개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언어생활’의 문제가 텍스트화

1) (리얼리즘) 문학과 리얼리티 문제에 관하여, 유승환의 글에서 정리되고 있는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김동인 단편 소설의 리얼리티를 고찰하고 있는 논문을 통해, 유승환은 리얼리즘(적) 문학에서 추구하는 ‘리얼리티’의 문제가 사실상 ‘사회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코드’라는 점을 짚어낸다. 서구의 전통적 리얼리즘의 코드가 ‘기표=기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바, 구조주의적 사유로부터 촉발된 기존의 리얼리즘적 글쓰기에 대한 반성은,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리얼리티의 측정 기준을 작품 속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정확성과 정당성에서부터, 특정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언어적 코드의 문제로 이동시킨다.” 문학과 (예술적) 리얼리티 추구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비평과 1930년대 초반까지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107-100면 참고.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노출되는 일종의 ‘무감각’이다. 식민공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제국의 언어/피식민자의 언어’ 사이의 교환 장면이 진정 문학적으로 적합하게 반영되어 실제로서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가에 대한 섬세한 문제의식 없이도, 리얼리티는 이미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리얼리티의 ‘결여태’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재현’ 행위가 그 자체 신뢰 가능한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질곡의 역사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소설이 다루는 모순된·불합리한 현실의 충실한 재현과 이를 통해 제출되고 있는 거대 담론에 압도되어<sup>2)</sup> ‘무엇을’ ‘어떻게’ 형상화하여 시대·현실·역사의 리얼리티가 성취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리얼리즘(적)’ 문학이라 간주되어온 기왕의 작품들의 리얼리티는 실상 현실에 대한 ‘절반의 리얼리티’에 기반하고 있으며, 작품들 역시 ‘절반의 리얼리티’를 성취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 본고는 식민지기 문학과 리얼리티에 대한 논의를 ‘언어’의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의 문제는 언어 사용주체 및 그 언어가 통용되는 사회구조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대적 사회 현실을 종합적으로 재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의 문제의식은 일제강점기에 씌어진 여러 작품들에서의 이중언어 발화 장면, 보다 구체적

2) 1920년대 카프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한 리얼리즘 문학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리얼리즘/모더니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명확한 문학사적 위치를 점유하기 시작한다. 이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향 아래 놓였던 리얼리즘은 해방이 되면서 “참여문학, 민족·민중문학”이라는 남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로 변주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문학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며 자생해” 올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민정, 『리얼리즘의 강박, 증상으로서의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재인식과 전망의 모색』, 『민중문학사연구』 제 54집, 2014, 300면 참고.

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의 역학관계가 별다른 문제없이 텍스트 내부에 ‘번역’<sup>3)</sup>되는 장면은 왜 문제시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식민지 언어정책, 특히나 이중언어체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함께 살펴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중언어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식민지 말기 조선인 작가의 일본어 창작물에 형상화된 작가 의식을 살피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일제말기를 협력/저항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재단하고 있

3)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이 요청된다. 그것은 본고에서 다루될 작가의 통역·번역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서술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소설에서 진행되는 이중언어 발화 장면을 텍스트에 기입하는 작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통역과 번역 모두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 그 낯선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통역이 대화이 이뤄지는 동시공간대의 시점에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통역자의 행위성을 강조한다면, 번역은 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서술 행위를 총칭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본고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의 외국어 발화 장면과 그것을 작가가 소설 내부로 기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층적인 행위들의 결합으로 이뤄져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가 소설 속 인물들의 외국어 발화 장면의 내용을 마주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고(=통역하여), 그 내용을 다시 텍스트에 기입하여(=번역하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장면은 통역과 번역이 이중으로 결합된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사이의 선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통역 행위 자체도 일종의 ‘자기 번역’의 과정이 우선시된 후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번역’ 개념이 보다 근본적인 행위로서 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역이란 개념을 통해 작가의 ‘글쓰기’ 자체 행위를 강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번역 행위에 내재한 권력예의 전복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범박하게나마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이중언어 발화(대화) 장면의 기입 행위를 ‘번역’ 행위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4) 김경미, 『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3집, 2008; 윤미란, 『어느 피식민자의 자기성찰 : 장혁주(張赫宙)의 『나의 풍토기(わが風土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22집, 2010; 김지영,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 장혁주의 일본어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2013; 최주한, 『일제 말기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시론』, 『춘원연구학보』 제6호, 2013; 이재봉, 『김사랑의 서사 전략과 조선/일본 사이의 글쓰기 :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를 중심으로』, 『코기도』 제84호, 2018.

음을 지적하며, 이 시기 작품들을 보다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논의들이 제출된다.<sup>5)</sup> 이중언어 글쓰기 문제를 태평양 전쟁 이후로 고정하는 기존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전(戰前)의 시점으로 논의의 시각을 끌어올리는 논의가 제출되는 등<sup>6)</sup> 이중언어 문제에 관한 생산적인 연구 역시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계승하며 본고 역시 식민지 이중언어 체제에 대한 관점을 식민지기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1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으로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국어 보급’의 열망은 세 차례에 이르는 개정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목격되는데, 보통학교 기준, 조선어 교육 시간의 비중이 20.7%(제1차조선교육령, 1912)→11.7%(제2차조선교육령, 1922)→0%(제3차조선교육령, 1938)로 급감되는 모습을 통해 일제의 공격적인 ‘국어 해독자 양성’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계획은 1944년의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총인구수 대비 ‘국어’ 해독자의 비율이 (같은 시기 대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일본 내 무성의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상황은 “상황 자체는

5) 현수영, 『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현대소설연구』 제43호, 2010.

6) 정백수, 『한국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 문화사, 2000; 권보드래, 『1910년대 이중어 상황과 문학언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2010; 차혜영,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이중언어문학’ 장: 국가와 시장을 둘러싼 언어선택과 문학제도의 재편에 관한 고찰』, 『상호학보』 39집, 2013.

7) 1943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의 경우, 이 시점에서 이미 조선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제말기의 교육 정책은 철저히 전쟁수행을 위한 군사적 가치에 집중되며, 군사교련과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다. 박화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국어정책-중등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4집, 2014, 131면 참조.

8) “국어를 해독하는 자의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대만이 약 62%(쇼와 18년 4월 현재. 1943.4.), 조선이 약 20%(쇼와 17년 12월 현재)로써, 조선에 현저한

늘 이중적이었고, 지향 자체는 늘 단일언어적<sup>9)</sup>이었다는 서술과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사용의 문제가 그 출발점에서부터 언제나 이중언어적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 사용은 분명히 단일언어 정책을 통해 규정될 수 없었으며, 이는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이들의 ‘대화 공간’이 필연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선인/일본인의 거주 공간이 명백히 분리되어 이들이 물리적으로 쉽게 마주칠 수 없었다는 기존의 논의를 벗어나, 문자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제도로서’ 기입되고 있는 일본어와 여전히 ‘모국어로서’ 존립하고 있는 조선어 사이의 언어현실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문제이다.

식민지 이중언어 대화 공간에서 정치·사회·문화 제영역에서의 권력 담지자-일본인, 혹은 모방자-조선인 모두 제국의 언어(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주체로 목격된다. 동시에 피식민지의 모어(조선어)를 말할 수 있는 식민지배자 일본인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보다 복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이 시기 제출된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몇몇 장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문맥상 일본어로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등장인물들의 대화 장면이 작가-서술자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되어 텍스트에 기입되는 장면이나, 혹은 이중언어 발화자들의 ‘외국어 발화자’라는 특징이 소거된 채 마치 네이티브와도 같은 언어 구사 능력을

손색이 있다. 대만에 있어서는 학교 이외의 다수의 향민연성소(鍊成所)를 설치하여, 또 조선에 있어서는 징병제 실시를 기한 청년특별연성소의 과정으로서 국어교육에 힘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昭和十九年七月內務省作製, 『朝鮮及七臺灣ノ現況』, 上書, 20면; 황호덕, 『경성지리지, 이중언어의 장소론: 채만식의 ‘중로의 주민’과 식민도시의 (언어) 감각』, 『대동문화연구』 51권, 118-119면 재인용.

9) 황호덕, 위의 글, 121면.

갖춘 설정 등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 염상섭의 소설들은 상당히 문제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여겨진다. 그가 일제시기에 발표한 장편소설들의 경우 식민지 언어 사용의 문제를 상당히 민감하게 그려내고 있으며, 그것이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형상화된 작가의 일회적 관심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된 모습으로 발견됨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일본(인) 표상의 문제와도 맞닿아있는 것으로서, 식민지배자-일본(인)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로 형상화하는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는 지점이기도 하다.<sup>10)</sup> 염상섭에게 언어의 문제란 식민지배의 현실을 감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 중 하나로 기능했을 것이라 판단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염상섭 소설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각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일본어 발화 장면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이러한 장면을 소설에 설정·기입하는 작가의 역할을 ‘번역’ 행위로 간주하며, 그것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가 염상섭 문학세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 지점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일제시기 한국 근대문학과 리얼리즘의 문

10) 그런 점에서 이해령이 제기하고 있는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령은 “현재하되 텍스트에 부재하거나, 흐릿한 얼룩으로만 있는 존재. 그러나 텍스트에나 텍스트를 생산하는 환경에 있어서나 실제적 현존의 효과가 결코 봉쇄되지 않는 식민자. 현존하는 부재, 부재하는 현존으로서의 식민자 혹은 얼룩들”을 재현하는 곤혹의 문제에 마주하여 염상섭이 “식민자와 그들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언급하지 않는 채” “식민지인됨의 삶과 경험을 표현”하는 모습을 고찰한다. (이해령,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大東文化研究』 78호, 2012, 323-324면) 하지만 과연 염상섭 문학이 이 문제를 진정 말하지 않는 채 재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본고의 답은 본문의 분석을 통해 찾아가보도록 할 것이다.



제를 다루는, 보다 생산적인 연구의 시각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2. 식민지 이중언어체제와 번역되는 제국의 언어

바흐친은 언어를 “뛰어난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언어라는 제제가 “기호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의 형태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임을 밝히고 있다.<sup>11)</sup> 이는 언어가 이데올로기의 효과적인 표출 형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서술로서, 이러한 바흐친의 논의를 일제강점기 조선의 언어정책에 관한 논의로 확대시킨다면, 식민지 경영 방식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국어’(기표)의 대체가 피식민자 조선인들의 ‘의식’(기의)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일제의 언어 정책의 기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일제는 식민종주국의 모국어를 철저히 학습함으로써 일본정신에 동화될 수 있는 피식민자 조선인이 창출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식민지의 언어 정책을 수행한다. 일제는 특히나 초등교육 체제에 대한 준비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며, 공립보통학교체제를 통해 일본어 보급을 주된 목표로 삼고 정책을 실시한다.<sup>12)</sup> 이러한 맥락 아래

11) 바흐친은 언어(말)가 “사회적 상호관계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민감한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데올로기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에 내포된 지시적·표상적 능력과 기호구조로서의 특수성을 고찰한다. 바흐친·볼로시노프 공저, 송기환 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22면.

12) 한편, 일제는 국어보급에 대한 강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립보통학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이뤄졌다. 미쓰이 다카시에 따르면, 재래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했던 서당에 대한 제재, 도(道)지방비에 의한 보조로 ‘국어강습회’ ‘국어강습서’ 등 설치, 일본인 교원이 부재한 곳에는 헌병이나 경

1911년 8월 칙령 제229호로 공포된 조선교육령 제5조(1911.11.1. 시행)를 살펴보면, “普通教育은 普通의 知識 技能을 教授하고, 특히 國民된 性格을 涵養하며, 國語를 普及함을 目的으로 한다”<sup>13)</sup>고 강조된다. 일제의 언어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지식전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라고 강조되고 있는 구절을 통해 실상 ‘국민다운 성격의 함양’과 ‘일본어 보급’이란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언어는 이것을 쓰는 인민에게 있어서는 흡사 그 혈액이 육체상의 동포를 나타냄과 같이, 정신상의 동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을 일본 국어에 비유해서 말하면 일본어는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체는 이 정신적 혈액을 주로 하여 유지되며, 일본의 인종은 이러한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도록 보전될 만한 고리 때문에 흩어져 어수선해지지 않는다. 고로 대란이 한번 오면, 그 소리가 퍼지는 한은, 사천만 동포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어디든 나아가 어디까지든 돕는다. 죽을 때까지 바친다. 그리하여 일단 희소식을 접할 때는 차사마의 끝도 오키나와의 끝도 일제히 천황치세의 영원함을 축

찰에 의한 일본어 교육 주도 등의 사례를 통해, 국어보급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어 교육 방침은 ‘삼면일교(三面一校)’계획(1918), ‘일면일교(一面一校)’계획(1929), 2년제 초등교육기관인 간이학교의 발족(1934) 등과 같이 공격적인 일본어 교육 기관의 증설이라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설명된다. 미쓰이 다카시(三ツ井 崇), 『언어문제』에서 본 한국 근대사: 교육정책과 언어운동의 측면에서, 『한국학 연구』 제22집, 2010, 456-457면.

- 13) 권영오, 『철원공립보통학교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역사와경계』 제69집, 2008, 259면.
- 14) 덧붙여 寺內正毅 총독이 1915년 3월 전문학교규칙과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할 때 내린 훈령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국어는 단지 처세상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선교육의 근본 뜻인 총량한 신민을 육성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교원된 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에 통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弓削幸太郎, 1923, 195; 박정환, 『프로이센-독일과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 비교 : 포젠, 조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68권, 2015, 198면 재인용.

복 드린다. 만일 이 말을 외국에서 들을 때는, 실로 일종의 음악이자 일종의 천당의 복음이다.<sup>15)</sup>

식민지 조선의 언어정책을 총괄했던 호시나 고이치(保科孝一)의 언어관은 그의 스승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로부터 이어진다. 우에다의 논의는 훔볼트식의 언어관, 즉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세계상’을 만드는 것이며, 언어와 민족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결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관을 통해 같은 언어를 쓰는 “정신상의 동포”로서 피식민자 조선인이 호명되고, 이들이 식민지배자 일본인과 동질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식민지 운영의 전략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질화의 논리는 일제말기 전시동원체제로의 가속을 뒷받침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로 이어지고, 식민지와 본국사이의 견고한 내선일체 사상의 확립을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언어정책이 요청된다. 1941년 ‘국민학교령’ 공포와 ‘국민학교 규정’을 거치면서 일본어는 “수신, ‘국사’, 지리와 함께 ‘국민과’로 편입”<sup>16)</sup>되고, 강력한 언론정책을 통해 조선어 통제·말살 기초를 확립하는 등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 질서가 강압적으로 재배치된다. 하지만 일본어 교육의 강제라는 현상을 역으로 해석한다면, 실상 194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도 ‘국어’로서의 일본어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확고한 단일 언어체제가 정립되지 못했다는 측면이 노출된다.

일제 말기 제국주의 파시즘으로의 진입 이전까지 조선에서 수행

15) 『명치문학전집』 44, 1968, 110면; 박정환, 위의 글 재인용.

16) 이 시기 ‘국어’ 보급 운동은 일제당국 및 친일단체에 의해서도 수행되는 것으로, 1942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국어보급운동요강’의 경우 “관공서직원을 시작으로 학생은 물론 회사, 공장, 광산, “청년단, 부인, 교회 기타의 모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일일어(一日一語)습득운동’, ‘국어강습회’” 운동을 펼쳐나간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방위적 ‘국어’ 보급에의 열망을 발견할 수 있다. 미쓰이 다카시, 앞의 글, 459면.

되었던 일제의 언어 정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언어 제국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언어 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제국의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의 “구조적·문화적 불평등의 구축과 끊임없는 재구축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제국의 언어가 굳건해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17)</sup> 특히 “지배 언어에 의한 언어적 동질화와 언어적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언어 차별주의(linguicism)’”가 존재하는 한 언어 제국주의는 지속된다는 점에서<sup>18)</sup>, 이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는 ‘위계화된’ 이중언어(diaglossia)<sup>19)</sup> 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언어 현실은 필연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양가적인 장면을 산출한다. 그것은 바로 양자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계에 선 존재’의 등장이다. 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 피식민지 원주민들은 자신을 ‘닳아야 하지만, 결코 같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식민중주국의 언어를 습득한 피식민자가 스스로의 ‘민족적 정체성’을 소거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을 ‘구분’할

17) ‘언어 제국주의’라는 말은 로버트 필립슨의 『언어 제국주의』(1992)가 간행되고 난 뒤 퍼져나간 것이다. 여기서의 개념 정의는 필립슨의 언어 제국주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재인용한 것인데, 이때 원문에서의 ‘지배 언어’는 “영어”를 가리키고 있다. 필립슨의 이와 같은 정의는 단순히 영어에만 언어 제국주의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가스야 게이스케, 『언어 헤게모니-‘자발적 동의’를 조직하는 권력』, 미우라 노부타카·가스야 게이스케 편, 이연숙·고영진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371면.

18) 위의 책, 같은 면, 373면.

19) 오태영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의 동양으로의 지리적·문화적 팽창 과정 속에서 ‘동양어’와 ‘서양어’의 비대칭적 관계가 역전되었다고 여겨진 후, ‘동양어’ 속에서 일본어, 조선어, 중국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등한 관계를 갖는 이중언어(bilingualism)가 아니라 제국/식민지 간 종속적·차별적 관계의 이중언어(diglossia)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한다. (오태영, 『다이크로시아와 언어적 예외상태』,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2010, 101면) 이러한 언어 사이의 위계질서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본고는 ‘bilingualism’이라는 용어보다는 diaglossia를 ‘이중언어’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정적인 지표가 무화된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는 서양과 달리 같은 ‘동양(인)’에 해당되는 식민중주국 일본과 피식민지 조선 사이 관계에서 파생되는 독특한 지점이다. ‘하얀 제국(인)과 검은 식민지(야만인)’라는 ‘시각적’으로 명백한 경계가 소거되며,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자가 외형상 쉽게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를 습득한 ‘피식민자-조선인’의 등장은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중언어 구사자들은 두 개의 언어가 마주하는 곳에서 양방향으로 향하는 정보를 포착할 수 있는 존재이다. 통·번역 행위에 내재한 ‘정보 전달’의 행위가 그 자체 문제적 국면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들은 ‘경계에 선 인물’<sup>20)</sup>로 규정될 수 있다. 식민지에서 식민중주국의 언어가 소수 언어의 위치에 놓이게 될 때, 새롭게 이식된 ‘국어’는 지배자의 언어이지만 또한 언제나 ‘하달되는’ 언어가 된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역설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전략을 통해 피식민자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새로운 권력이 창출될 수 있다는 ‘환상’이 적극적으로 유포되도록 일조하는 것도 사실이다.<sup>21)</sup>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배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말이 피

20) 그들은 일본어를 조선어로, 조선어를 일본어로 옮길 수 있는 당대의 ‘통·번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와 관련하여 언제나 의심의 눈조리가 따라다니는데, 이들을 일종의 ‘거간꾼’ ‘스파이’로 호명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지점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김동인의 『잡초』(1932)에서는 언어 습득 능력과 하층계급의 신분이동의 장면이 형상화된다. 조선인 헌병보조원 청년은 (아마도 일본인인 듯한) 헌병과 함께 오학동을 찾아와 조선인 마을의 “춘기 대청결” 검분을 하며, ‘일본사람보다 더 한 태도를 취한다. 이때 그는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권력자의 위치에 선 ‘일본말 할 줄 아는 조선인’ 헌병보조원의 모습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뜰에서 유난히도 똑똑히 검분하고 있던 보조원은 문득 사랑 앞에 발을 멈추었다. …(중략)… “이게 뭐야.”고 보조원은 채송화를 내려다보면서 심술궂은 소리로 고함쳤다. 뒤에 섰던 헌병이 웃으면서 일본 말로 보조원에서 무에라고 하였다. 보조원은 일본 말로 웃으면서 헌병에게 말하였다. 그런 뒤에 발로 꽃을

식민자들의 귀에 ‘들려져’(=번역되어) 그 의미·내용이 간파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up>22)</sup>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에서의 (통)번역의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화해본다면, 그 실천은 “언어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를 통해 “차이의 거리를 확립”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3)</sup> 일본어와 조선어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음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통)번역의 문제를 현실사회에 대한 리얼리티의 측면과 관련지어볼 수 있다. 그것이 소설쓰기의 문제로 이어질 때, 소설 내부에 기입되고 있는 일본어 발화 장면에 대한 작가의 ‘의도적 환기’가 이뤄지는 부분은 주목을 요한다.

---

가르키면서, “이게 뭐야”고 고함쳤다. 노인은 망치소조하며 보조원의 앞으로 갔다. 손은 어느덧 읍하여졌다.” 김동인, 『잡초』, 『신동아』, 1932.4~5(『김동인 전집3』, 조선일보사, 1988, 98-99면)

22) 이는 ‘히잡을 쓴 알제리 여성’에 대한 식민지배자의 시선의 문제를 살핀 파농의 논의와 맥이 닿아있는 지점이다. 파농은 프랑스인들이 이들의 히잡을 강제적으로 벗겨내려는 것이 “보이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이 여인이 식민지배자를 실망”시켰기 때문이며, 특히나 피식민자를 “자기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잠정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콤플렉스”라고 말한다. (프란츠 파농, 홍지화 역, 『알제리 혁명 5년』, 인간사랑, 2008, 43면.) 이때 파농이 말하고 있는 ‘히잡을 쓴 여성들’이 식민지배자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때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본고에서 언급하는 ‘식민지배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피식민자’ 역시 식민지배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판단된다. 자신들(식민지배자)의 말을 듣는 그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에게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식민지배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존재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23) 마이클 크로닌, 김용규·황혜령 역, 『번역과 정체성』, 2010, 181면.

### 3. 기입되는 일본어 ‘번역’ 행위와 감각되는 민족 정체성

『만세전』은 언어 문제에 대한 염상섭의 관심이 비교적 초기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조선인 유학생 이인화의 귀국 과정에서 그려지는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각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일본인/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의 표지와, 그것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참여하게 그려내는 점이다.

소설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귀국하는 이인화의 귀국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이인화가 식민지 본국의 수도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그가 자각하는 언어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에 기입되는지 그 양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가 동경 W 대학 문과 대학생의 신분으로 유학하며 카페 여급 시즈코와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동안 그에게는 별다른 문젯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할 필요 없이 그저 동경의 거리를 활보(하는 듯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인화가 귀국을 결심하고 동경을 떠나 조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식민지 현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감각되기 시작한다. 이는 ‘나’와 경성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나’가 ‘피식민자-조선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점차 강렬하게 인식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나’에게 다가오는 제국경찰의 ‘감시’는 구체적인 취조 행위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나’가 식민본국 동경에서 애써 외면했던 ‘피식민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환기시키는 기폭제의 역할을 담당한다.

관부연락선에서의 ‘목욕탕’ 장면은 『만세전』의 가장 문제적 화소로서,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문제적인 것으로 인

식하게 된다. 이때 이들의 대화가 일본어로 이뤄졌다는 것은 명확히 짚여지지 않은 채 작중 상황과 문맥을 통해 유추되는 부분이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나’의 귀에 이들의 일본어 대화가 들리게 되며, 이것은 ‘나’로 하여금 식민지배자 일본(인)의 기만을 마주하게 추동한다.

‘臺灣의生蕃’이란말에, 그浴湯에, 드러안것든사람들이, 나만 썰어노코는모다 킁々우섯다. 나는 가만히안것다가, 無心코 입살을악물고 치어다보앗스나, 더운김에 가리워서, 厥者들에게는 仔細히 보이지안은모양이었다. …(중략)… 그러나 一年二年 歲月이갈스록, 나의神經은 漸々興奮하여야가지안을수가 업섯다. 이것을보면 敵愾心이라든지 反抗心이라는것은, 普通境遇에 自動的 理智的이라는것보다는, 被動的 感情的으로 誘發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日本사람은, 小々한言辭와 行動으로말미암아, 朝鮮사람의抑制할수업는反感을 沸騰케한다. 그러나 그것은 結局 朝鮮사람으로하여금 民族의墮落에서 스스로救하여야하겠다는 自覺을주는 가장緊要한動因이될뿐이다.

目今도 沐浴湯속에서 듯는소리마다 귀에거슬리지안는것이 업지만, 그것은 毒藥이 苦口나 利於病이라는格으로, 될수잇스면 만흔朝鮮사람이듯고, 오랜夢遊病에서 깨어날機會를 주었스면하는생각이업지안타.<sup>24)</sup> (강조-인용자)

“나와 마주 앉은 자”의 “자본없이 힘 안 들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훌륭한 사업’이란 실상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통해 이들을 내지의 곳곳에 팔아넘기는 계략으로, 그자의 말을 듣던 ‘나’는 마침내 식민지배체제의 민낯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인화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자각은 “요보” “조선 쿠리”라는, 전적으로 일본인의 시각에서 조선인을 경멸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이인화의 귀에 ‘들리는’ 장면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인화의 분노는 감히 그 어떠한 구

24)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 52-54면.



체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없기에, 그저 ‘일본인인 척’ 그 자리에 앉  
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sup>25)</sup>

그런데 이렇게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있는 이인화의 가면은, 그를  
찾아온 어떤 사내에 의해 벗겨진다. ‘xx서’에서 나온 그 자는 조선  
사람이 분명하나 굳이 일본어를 사용한다. 서로가 조선인이라는 사  
실을 인지하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일본인들 앞에서 그들의 언어를  
빌려 일본인인양 기만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失禮을시다만, 여기 李寅華란이가 계십니까.”하고 묻는다.

“네-, 나요. 왜그러우?”

나는 厥者の압호로 두어발자국나스며 이리케對答을하였다.  
厥者は 한참 차저단이다가, 겨우 만난것이 반갑다는듯이 빙글  
빙글우스며, 門을 활짝여러제치고서서 이리 좀나오라고 命令  
하듯이 소리를친다. 學生服에 만도를들은體格이며, 제판은 流  
暢하게한답시는 日語의語調가, 못지안어도 朝鮮사람이 分明하  
나, 그래도 짓구지 日語를使用하고 돌이어 自己의本色이 綻露  
될가보아念慮하는듯한沈着치못한行色이, 나의눈에는 더욱殊常  
적기도하고, 근질근질하여보이기도하였다. 나의姓名과 그사람  
의語調를듯고, 우리가 朝鮮사람인것을 斟酌한여러日人の視線  
은, 나에게서 그者에게, 그者에게서, 나에게로 울지갈지하는모  
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두사람은, 日本사람압해서 喜劇을演作  
하는 鸚鵡새의格이었다.

“무슨이야긴지, 할말있건 예서 하구려.”

나는 이연가 미연가하며, 亦是 日語로對答하였다. …(중  
략)… 여러사람의輕蔑하는듯한視線은, 如前히 내얼굴에 거미  
줄느리듯이 어리우는것을깨다랐다. 더구나 아까 이야기하든세  
사람은, 훗근々々 것눈질을하는것이 分明하였스나, 나는 돌이  
어 그視線을 避하였다. 不快한생각이 목구멍밧까지 치미러오

25) 하지만 ‘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피식민자 조선인들이 이러한 반감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얻  
게 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점에서 다소 소극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는것갓틀뿐안이라, 어쩐지 괴운이줄고 억개가쳐지는것가타얏다.<sup>26)</sup> (강조-인용자)

이 장면에서 배우-조선인, 관중-일본인이라는 일종의 연극적 구도가 형성되면서 두 방향의 시선이 충돌한다. 식민지배자로서 자임하는 일본인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장이 ‘일본어를 말하는 조선인’에 의해 교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멸과 불안. 그리고 식민지배자를 흉내 내고 있다는 식민지 조선인의 자각 혹은 자괴감이 그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장면을 기점으로 작가가 ‘일본말로 진행되고 있다’는 서술을 명확히 소설에 기입하기 시작하는 점이다. 그것은 과거 동경에서의 ‘나’가 일본어와 조선어를 분리하여 세계를 인식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언어 사용과 민족적 표지의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장면은 작가에 의해 ‘번역’의 행위로 소설에 가시화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언어 사용의 현실을 드러내게 된다.<sup>27)</sup>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인화가 부산에 도착한 뒤의 서사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이 흥미롭다. 일본어 사용의 문제가 더 이상 식민지배자의 ‘감시의 시선’과 연계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으로 확대된다. 부산에 도착한 이인화가 허름한 일본 국숫집에서 만난 (조선인-일본인) 혼혈 계집은 스스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소거하는 인물

26)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 62-64면.

27) 부산에 도착하여 마침내 조선 땅에 발을 디게 된 이인화를 불러 세우는 것은 또 다시 귀에 들리는 ‘일본말’이다. “日服에 임바네쓰를 입은 親舊”가 좌우편에 늘어섰던 사람들 틈에서 등장하여 “여보, 여보”라는 “勿論 日本말”로 ‘나’를 불든 채 파출소로 끌어간다. (파출소에서의 취조 장면이 일본어로 이뤄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나’는 또 한 번의 취조를 받은 뒤에야 부산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다.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며 조선(인)이라는 글자가 “自己의 運命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준 무슨 呪文이나 뜻는 것” 같은 태도로 조선적 정체성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에 이인화에게는 불편한 감정이 발생한다.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화소들 가운데 일본인 사무원과 조선인 역부 사이의 대화 역시 중요하다. 김천 형님을 만나고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나’는 역으로 향하고, 형님과 아는 사이인 일본인 사무원은 친절함 태도로 ‘나’를 대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조선인 역부와의 일본어 대화를 통해 그의 이중성이 폭로된다. 앞서 ‘나’와 사무원의 대화도 일본어로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작가는 별다른 표지 없이 상황 서술에 치중한다. 이러한 의도적인 구분은 실상 사무원에게서 노출되는 ‘식민지배자-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서술 전략인 셈이다. 그가 “살기등등한 뚱뚱한 얼굴”로 조선인 역부들을 향해 “빠가”라고 소리친 뒤, 태연하게 나를 향해 웃어 보이는 장면은 그 불쌍한 조선인 청년들의 “검은 그림자”를 떠올리게 추동하는 것이 된다.

덧붙여 집에 도착한 후의 ‘차지’ 화소 역시 주목을 요하는 장면이다. ‘차지’는 김의관의 ‘봉’이라 불리는 자로서, 그가 차지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행하고 있는 조선말도 일본말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말 때문이다. 우리말 ‘관계·지장 없다’의 ‘지장’이란 말에 대응되는 일본어 ‘사시스카에’(さしつかえ, 差(シ)支)의 한자를 음차하면 ‘차지’가 된다. 그러나 그는 “가장 일본말이나 할 줄 아는 듯이” ‘관계없다’도 아니요 ‘差し支えない’도 아닌 “차지 없다”라는 조선어+일본어의 기이한 조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장면은 소설 속에서 그저 사소한 장면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만세전』에서 다루고 있는 이중언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언어정책의 흐름 속에서 조선인들의 생활언어

로 침투하고 있는 일본어의 위력을, 그러나 그 모습은 지극히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첨예한 작가의식의 발로인 것이다.<sup>28)</sup>

#### 4. ‘보여지고 · 들리고 · 말해지는’ 제국의 언어와 교란되는 식민지의 언어질서

『만세전』에서 발견되었던 언어 문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이제 일본어 발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염상섭의 재도일(再渡日) 경험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여겨지는데, 약 2년간의 기간 동안 그는 식민본국과 피식민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돌아올 수 있었다. 특히나 일본(인)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규정된 것으로 목격된다. 이전의 소설에서 발견되는 일본(인)에 대한 감각은 두려움과 불안이 착종된 그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서, 그 바탕에는 식민지배자-일본(인)에 대한 ‘그림자’가 남겨져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도일기를 기점으로 하여 발표되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일본(인)은 대상화될 수 있는 표상으로 발견되며, 특히나 실체화된 타자로서 일본(인)을

28) 이와 비슷한 장면이 『진주는 주었스나』(『동아일보』, 1925.10.17~1926.1.17)에서도 발견된다. 인천 미두왕 이근영이 인숙에게 보낸, 일본문과 조선문이 뒤섞여있는 편지(“그러나 원 세음인지 전문 삼분지 이는 일본말로 지치발지 치발 그리었고 남어지는 조선문으로 함부로 같기인 남자의 편지였다.”(염상섭, 『진주는 주었스나』, 『동아일보』, 1925.10.24.)) 가운데 일본어로 쓰인 부분의 경우 현학적이고 수식어구가 많은 반면, 이 편지의 ‘진짜’ 목적은 조선말로 기입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다만, 작가는 일본말로 작성된 부분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지면에 신되, 이것이 일본말로 씌어져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말로 작성된 부분과 조선말로 작성된 부분을 구분하여 나타냄으로써(“이상은 일본문”, ‘일본말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장면에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여겨진다.

응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모는 재도일 이후 발표된 신문연재소설의 일본어 발화 장면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된다. 그것은 소설 속 인물들의 일본어 사용 장면을 기입하는 데 있어 ‘타자’ 그 자체로서의 일본어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식민지기 염상섭의 소설들을 살펴볼 때 일본어 대화 장면이 소설에 기입되는 것은 빈번하게 발견되는 것이지만, 유독 이 시기의 작품들(『사랑과 죄』, 『이심』, 『광분』)에서 ‘일본어’ 그 자체가 소설에 흔적을 남기는 장면이 두드러진다.<sup>29)</sup>

『사랑과 죄』(『동아일보』, 1927.8.15~1928.5.4)와 『이심』(『매일신보』, 1928.10.22~1929.4.24)의 경우 일본어 사용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장면들을 다루고 있다. 두 작품의 등장인물들 대다수가 일본(인)과의 밀접한 관련을 지닌 인물들이며, 기본적으로 유창한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sup>30)</sup> 특히 정마리아

29) 이 문제를 1920년대 신문과 대중(성) 확보,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염상섭이 각각의 매체(『동아일보』, 『매일신보』)를 ‘활용해’ 문제의식을 형상화해나가는 장면을 주목해볼 수 있다. 박헌호에 따르면 “신문주체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중앙권력이 존재할 수 없었던 식민지 상황에서, ‘현실로 존재하는 식민권력’과 ‘상상적으로 상정된 반식민 권력’으로서의 신문’이라는 가상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문은 피식민지인의 ‘대리정부’로서의 위상을 자칭하고 나섰’던 것이었으며(박헌호, 『문화정치시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검열연구회 편,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221면) 민간신문이 기관지 『매일신보』, 더 나아가 식민권력 그 자체를 대타향으로 설정하여 ‘독자의 확보’라는 문제에 집중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염상섭이 『사랑과 죄』를 『동아일보』에, 그 바로 다음 작품인 『이심』은 『매일신보』에 연재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두 작품 모두 식민지 이중언어체제에 관한 작가의 관심, 특히나 타자로서의 일본어에 대한 감각을 담고 있지만 그 문제의식을 형상화하는 모습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라 여겨진다.

30) 『사랑과 죄』의 경우, 자작 리해춘은 일본에서 미술 공부를 한 유학파이며, 일본인 스승 심초매부와 현재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호연은 동경제대 독일 법률과를 졸업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이고, 류진은 일본인 어머니와 친일파 아버지 사이에서 난 혼혈아이다. 정마리아는 일본·미국·상해에서 유학한 성악가로서 친일파 류택수와 비밀스런 만남을 지속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인

와 박춘경은 각각의 소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문체적 인물 중 하나이다. 특징적인 것은 작가가 이들 인물에 대한 대타향을 설정하여(정마리아:지순영, 박춘경:위영애) 전자의 인물들을 일본어 발화 장면 그 자체와 연결 짓고, 이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방식이다.

(1) “いらっしゃいませ! (어서오십시오)”

압부장한 계집 하인이 둘이나 나와서 꾸러안저 인사를 하고 단장과 우산을 맞는다. 늑수그레한 주인놈도 사무실(帳場)에서 튀어 나오더니 옷가슴을 염이며

“いらっしゃいませ! けふむひごうござんすな(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더위가 심합니다그려)” 하며 반가히 굽실한다. …(중략)…

“浴衣を持つてまゐりませうか?”

“응 이러케 더워서야 양복을 좀 버셔야지!”

“奥さまは(마님께서는?)”<sup>31)</sup>

(2) “わたし、けふ 紀念のために思ひ切つてやつたの! 賞めて頂戴いね?? よくうつるでせう? (오늘 기념으로 결단하고 깎아버렸답니다. 칭찬해 주세요. 잘 어울리지요?)”<sup>32)</sup>

(3) 춘경이는 남자가 자기를 매춘부나 다루듯이 이러한 수단을 쓰는 것이 언제나 불쾌하고 굴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

경무국 사무관(중산)과 “파트론” 관계를 맺고 있다. 『이심』의 경우, 주인공 춘경은 여학교 고등과를 중퇴하였으나, 과거 일본인 교사들과의 유창한 대화가 가능했을 정도의 수준급 일본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묘사된다. 고등보통학교 출신 이창호와 A학교 고등과를 졸업하여 소학부 교사로 부임한 위영애 역시 일정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인물이며, 무역상회 직원인 강찬규는 일본인 천전과 좌야의 “병정 노릇”을 하며 잇속을 챙긴다. 텍사스 석유회사 서기장인 미국인 커닝햄은 일본(과 조선)에서의 생활로 인해 유창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31)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10.11.

32)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12.8.

니지마는 그래도 그 농락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いやあよ! よしましよよう. もう昔の春子ぢやななてよ!(실  
혀요! 고만두어요. 인젠 그전 춘자가 안야!)”

하며 춘경이는 어리광을 쌈는 소리를 하고 몸을 비꼬는다.<sup>33)</sup>

(4) 좌야의 병실 압에 가서도 춘경이는 선듯 들어가기가 섬  
억섬억 하얏다. 지금 그 순사처럼 눈을 홉혀보고 로골덕으로  
비웃고 하지는 안켓지만은, 돈 삼십원을 어더가자, 금시로 양  
복을 썰쳐입고 그 남자의 압해 나타나는 것은 아무턱도 기가  
줄고 압이 굵지 안홀 수가 업섯다.

“よ- すつかりモがになつたなお(야아 아주 모-던쩍이 되었  
는걸)”

하며 좌야는 첫대배기에 깔깔 웃는다.<sup>34)</sup>

위의 인용문 (1)과 (2)는 『사랑과 죄』의 정마리아가 각각 류택  
수, 리해춘과 밀회를 나누기 직전/직후의 장면이다. (3)과 (4)는 『  
이심』속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춘경과 일본인 좌야 사이의 대화를  
묘사한 부분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화의 내  
용보다도 일본어로 발화된 일본말 그 자체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일본어 대화 상황을 조선말로 ‘번역’하여 기입하는 것 외에 일본어  
‘그 자체’를 표기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만세전』에서  
목격되었던 일본어 대화 장면과는 다소 변화된 지점이다. 한국 근대  
소설에서 일본어가 텍스트 내부에 침투되고 있는 장면은 대체적으  
로 19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해당되는 작품들에서 본격적으로 발  
견되는 현상이다.<sup>35)</sup> 윤대석에 따르면 일제말기 이러한 언어 사용의

33) 염상섭, 『이심』, 『매일신보』, 1928.12.5.

34) 염상섭, 『이심』, 『매일신보』, 1928.12.11.

35)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수영은 일본어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소설의 유  
형을 표기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1)전문(全文) 일본어  
창작, 2)일본어의 (부분) 노출, 3)일본어의 한글 표기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작가들은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문제가 ‘조선 문학=조선어 글쓰기’라는 기존의 조선 문학의 원칙을 무너뜨린 현상이며, 일본어·일본인이라는 ‘타자’가 한국 소설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모습에 다름 아니다.<sup>36)</sup>

그러나 이보다 앞선 1920년대 후반의 시점에서 염상섭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소설 쓰기 전략, 즉 ‘타자로서의 일본어’에 대한 감각을 첨예화시키는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사랑과 죄』와 『이심』 분석으로 돌아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일본어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상황 그 자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인용문 (1)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일본인 주인의 발화만 일본어로 기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浴衣を持つてまゐりませうか?”라는 문장은 아예 그 의미가 번역되지도 않은 채 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어 발화를 철저히 문자-기호로서 텍스트에 기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는 외국어로서의 일본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어 대화가 이뤄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 그 자체를 독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관상 쉽게 구별되지 않는 타자로서의 일본(인)을 감각하게 한다.

이러한 판단은 소설에서 나타난 ‘편지’ 화소와 관련하여 일본어 글쓰기/조선어 글쓰기의 문제로 환치되는 모습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sup>37)</sup> 『사랑과 죄』에서 “필자의 역문”으로 번역되어 지면에 소개

다고 설명한다. 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는 채만식의 『냉동어』(1940), 세 번째의 경우 박태원의 『애경』(1940)이 소개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8호, 2007, 264-268면 참조.

36) 윤대석,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 글』 제57집, 2013, 344-345면.

37) 해춘이는 방바닥에 노힌 편지와 손에 들은 편지를 돌려가며 바라보고 안절다가 …(중략)… 순영의 편지를 무릅 위에 노코 마리아의 편지부터 쑥 지졌다. 그것은 일본 주지에 역시 붓으로 획획 갈겨쓴 일본말 편지였다. 글씨가 입브다! 고



되는 마리아의 일본어 편지가 “생명없는 공소한 글자나 말”에 불과하다는 리해춘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과 달리, 조선말로 씌어진 순영의 편지는 단순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 “대답스러히 한 걸음 다가서려는 결심”이 보일듯한 순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순영의 편지가 말하고 있는 강렬한 순정과 양심의 목소리는 조선말로 표기된 편지 형식과도 관련된 것으로 이어짐에 따라 소설 속에서 ‘정마리아:지순영 = 일본어(편지):조선어(편지) = 진정없는 기교:양심과 순정’이라는 구도가 성립되고, 작가는 이를 통해 지순영과 정마리아로 표상되는 조선어/일본어 사용 문제에 대한 윤리적 판단 근거를 마련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심』 속 춘경과 좌야 사이에 오고가는 편지 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소설 서두에서 제시되는 돈 삼심원과 교환되는 ‘일본어로 쓰인’ 좌야의 편지에 대해 작가는 남편 창호의 시선으로 ‘타락함, 부정함’이라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한편, 두 소설의 일본어 발화 장면은 주의자들의 서사 혹은 수탈자-일본인 서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적인 것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식민지의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의 언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이다. 우선 『사랑과 죄』의 경우, 변호사 김호연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은밀히’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서 사회주의자나 독

---

또 한 번 속으로 생각하며 읽어 간다-(이하는 필자의 역문(譯文)이다) …(중략)… 여기까지 본 해춘이의 얼굴에는 무심코 ‘흥!’ 하는 우습은 써올려 왔다. 공연히 글의 색채를 내이라고 애를 쓴 자취만 보일 뿐이요 솔직한 진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불만족하였다. …(중략)… 이 편지가티 생명없는 공소(空疎)한 글자나 말로 표시되는 그 속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사랑의 힘을 발견하리라고는 미들 수 업섯다. …(중략)… 순영이의 편지는 기대하였더니 보아서는 넘우 간단하고 가슴에 선듯 들어오는 힘이 업섯다. 엇더케 생각하면 알상궁게 무슨 테를 빼이는 듯이도 생각되었다. …(중략)… 평범한 말 속에도 눈물을 참고 발을 써는 순영이의 표정이 보히는 듯도 쉽고 참다참다 못하여 대답스러히 한 걸음 닥아서라는 결심이 보히는 것도 분명하였다. (강조-인용자)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12.13. ~15.

립운동가들의 운동에 단순히 '동정'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이 몇몇 장면에서 의해 암시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녹막염으로 (거짓) 입원한 김호연을 찾아간 리해춘은 병실에서 한 장의 전보를 발견하고, 이때의 전보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비밀스럽게 읽혀진다. 사리원 정거장에서 발송된 이 전보는 “ケイカヨケレバ オウトスココセ(경과가 조커든 동생은 곧 보내요)”라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불건전한 ‘은어’ 따위 발견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대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전보 화소가 처리되는 양상을 눈여겨봐야 한다. 식민지의 모든 전신·전보는 검열의 대상이 됨에 따라<sup>38)</sup> 피식민자의 정보는 제국의 전신망 속에서 통제된다. 1905년 한일통신합동조약이 체결되어 1906년 통감부 통신관리국이 설치된 이후 일제의 식민지 통신기관 장악 욕망은 일본어 전보 사용량의 꾸준한 증가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조선어 전보의 비율이 1919년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여 1941년 강제 중단되는 것과 달리, 일본어 전보의 경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sup>39)</sup> 게다가 통신검열의 주체로서 일본인 관리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sup>40)</sup>은 식민지의 모든

38) 한만수에 따르면 식민지 조선에서 우편검열이 실시되었음이 확실한 반면, 전보 검열이 실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일본과 만주에서 전보 검열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 신문전보는 ‘화문(和文)의 보통체’여야 한다는 규정 등의 사례를 통해 전보검열이 시행되었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제국검열’은 긴밀한 상호참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통신검열의 속성상 수신자 쪽과 송신자 쪽을 함께 검열해야 효율적이므로, 일본 만주에서 통신검열을 시행했다면 조선에서만 시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한만수, 『식민지 시기 근대기술(철도, 통신)과 인쇄물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32집, 2007, 65-67면 참조.

39) 다칭 양, 『일본의 제국적 전기통신망 속의 식민지 한국』,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253면.

40) 식민지배의 기간 내내 일제는 조선의 통신망을 확고히 통제했으며, 체신국에서의 고위 관리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으로 채용되었다. 다칭 양의 연구가 보여 주듯, 통신 보안이 ‘방첩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체신국 내 일

정보가 ‘단일언어’<sup>41)</sup>로서의 일본어로 유통되어, 식민지 운영을 위한 정보 검열이 ‘무리 없이’ 수행되게끔 겨냥한 일제 당국의 최종 목표를 방증한다.

이러한 현실과 관련하여 염상섭은 소설 속 주의자들의 조선어 전보가 일본어로 번역되는 장면을 소설에 기입하고 있는바, 이는 일제의 언어정책, 더 나아가 식민지 이중언어체제를 향한 대담하면서도 교묘한 저항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주의자들의 메시지가 ‘유해 전보’로 취급되지 않은 채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촘촘한 검열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sup>42)</sup> 염상섭

본인의 비율은 압도적이었고, 1935년에야 최초의 조선인 판인판급 이상으로 승진한다. 다칭 양, 위의 글, 253-257면.

- 41) 이와 관련하여 데리다는 식민지배의 상황 속 이중언어체제를 ‘번역’의 문제와 관련지어 논의하며, 이중언어의 단일언어적 특징을 “신중하고 차별화된 보편화 (prudent and differentiated universalization)”라는 측면으로 살핀다. 제국 일본이 목표하는 공용어-일본어의 보급을 위해 조선어→일본어로의 번역행위가 수반될 때, 식민지의 모어를 번역하는 지배언어의 논리는 보편과 질서 등의 가치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데리다의 논의를 참고해볼 수 있다. “Quite far from dissolving the always relative specificity, however cruel, of situations of linguistic oppression or colonial expropriation, this prudent and differentiated universalization must account, and I would even say that it is the only way one can account, for the determinable possibility of a subservience and a hegemony.” Jacques Derrida, (translated by Patrick Mensah), *Monolingualism of the Oth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23
- 42)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보검열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규칙 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 제국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전신법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인 모습을 감안해볼 수 있다.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에 따르면 일본에서 1900년 1월 1일에 전신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철저히 “공안의 방해 및 풍속을 괴란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전신법 제1조는 전신·전화가 정부의 관장사항이라고 하여 우편처럼 전신과 전화도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해전보’로 판명될 경우, “전보취급 규칙 제404조”에 의거하여 송달이 중지된 채 “이유를 붙인 위에 국보(局報)로서 관할 체신국장에 보내”거나, 혹은 접수창구에서 발각될 경우 “그대로 수리해 첩부 우표에 소인을 누른 후에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다만 유해부분이 사소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삭제하고 송달을 허가”하거나 이미 송신된

은 소설 속에서 주의자들의 메시지가 의도적으로 제국의 언어를 경유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전보 처리 담당자로 상정된 제국-일본(인)의 언어 문법장을 '유유히' 통과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이 문제의 전보를 소설 속에 노출하는(=텍스트에 기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주목해야 한다. 염상섭은 일본어(가타카나)로 쓰인 전보의 '전송 형태'와, 조선어로 작성되었던 본래의 의미를 '모두'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생경한 기호-문자로서의 일본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소설 속 사회주의자들의 비밀스러운 암호 그 자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국/식민지 이중언어체제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작가 염상섭의 불온한 글쓰기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글쓰기 차원에서 목격되는 반체제적 의식은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카페신을 통해 명확해진다.

모다 일본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본 말로 수작을 하는 것이다. 일본말 몰르는 기생들은 한 구석에 쫓치고 안젓을 수밖게 업다. 더욱히 마리아의 일녀 불췌어지를 만한 일본말에는 남자들이 돌려다보고 웃기까지 하였다. 그 웃음은 웃는 사람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괴네에게 무례히도 보내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쪼는 얼마나 그로 인하여 자존심이 깎기는지를 알면서도 역시 일본말을 쓰지 안흐면 안되는 것은 어떤 까닭이엇든가? 호연이는 불쾌하였다. 그러나 나직하게 조선말로 이약이할 췌에도 자괴가 지금 조선말을 쓰거니 - 조선웃을 입엇거니 하는 생각을 일치 안하였다.<sup>43)</sup> (강조-인용자)

경우 "국내 수칙으로 '송달방사제(送達方何濟)'를 첨부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 『한국 통신검열체제의 기원』, 『아세아연구』 통권 143호, 2011, 161-163면 참고.

43)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7.11.28.

일본인 손님들로 가득한 이 밀실 카페에서는 일본어 사용이 암묵적인 룰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어 전유 공간으로 설정된 이 카페스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말 할 줄 아는’, 즉 자신들을 흉내 낼 줄 아는 조선인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양가적’ 감정의 포착이다. 자신들의 언어를 자신들만큼이나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흥미와 두려움이라는 상충된 감정을 느끼는 그들의 공간을 가로질러, 아나키스트(야마노)-꼬뮤니스트(적토)-사회주의자(김호연)-니힐리스트(류진)-에고이스트(리해춘)의 만남<sup>44)</sup>이 성사된다. 이들의 대화는 “모두 일본말로 교환”되고 있지만, 그 대화 내용은 작가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되어 텍스트에 기입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적 인물들’이 ‘일본인들의 공간’을 점유하여 일본어로 토론을 나누는 장면을 통해 작가가 식민지배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어로 이뤄지는 이들의 토론 내용은 ‘부득이하게’ 카페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의 귀에 들리게 되며, 궁극적으로 (야마노와 적토를 감시하던<sup>45)</sup>) 형사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형사는 막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이튿날이 되자 적토와 야마노와의 만남을 발미로 하여 리해춘 일행은 취조의 대상이 된다. 불온한 자들의 연대를 저지하기 위한 ‘저들’의 움직임 속에서 수행되는 전략은 흥미롭게도 피식민자-조선인의 모습을 닮는 것이다. 평양에서의 “모중대사건”이 발생한 후 “조선옷에 짙신 신은 사람”으로 꾸며 리해춘을 미행하는 일본인 사복 경찰이 소설에 등장하는 부분은 염상섭 소설에 나

44) 황종연, 『과학과 반항: 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사이』 통권 15호, 2013, 117면.

45) 제국경찰의 감시의 대상에는 조선인만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역시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상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제조일본인들 역시 체제에 의협적인 존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소설 속 야마노와 적토 모두 감시의 대상이라고 서술된다.

타난 ‘조선말 쓰는’ 이중언어 구사자-일본인 중 가장 교묘하게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인의 모습에 해당한다.<sup>46)</sup>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봐야 겨우 일본인이라는 것이 파악될 정도로 조선 사람을 닮아 있다는 설정은 앞서의 『만세전』에서 발견된 ‘일본인을 흉내내는’ 조선인 형사의 거울쌍이며<sup>47)</sup>, 조선인 사이로 틈입해 들어온 일본인의 표상이다.

그런데 일본인 심초매부와 일본인 형사의 모습이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하다는<sup>48)</sup>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리해춘의 스승으로 소개된

46) “‘어대 가십니까’ 해춘이는 잠작 놀랬다. 자기집에 가택수색을 왔을 때 가티 왔든 형사의 한 사람이다. 분명히 일본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선옷을 입었다. 말도 조선말이다. 그러나 <어대>를 <오대>라고 하는 일본사람의 조선 말씨는 조금도 없다. 해춘이는 마치 탐정극의 일막을 연출하는 듯한 웃은 생각과 불쾌한 감정을 한꺼번에 늦겼다. …(중략)…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일본사람이 변장한 것인 줄을 짐작하겠으나 하여간 류창한 조선말이다.”(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8.1.22.)

47) 『만세전』 속 ‘내지’의 조선인 형사와 『사랑과 죄』 속 ‘외지’의 일본인 형사가 타내는 각각의 모방(위장) 장면을 비교해본다면 이들의 관계를 일종의 거울쌍 구도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거울이란 타자를 향한 닮음을 상상하게 추동하는, 그러나 결코 완전한 합일이 이뤄질 수 없는 식민지의 그 어떤 독특한 ‘경계’를 의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식민지의 거울-경계 속에서 이들 인물들의 모방 행위는 그 자체로 반대의 경우, 즉 타자(=거울 안의 존재)의 행위 역시 존재하도록 이끈다. 즉, 일본인을 모방하는 조선인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조선인을 모방하는 일본인의 존재 역시 가능함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울-경계의 끝에 발견되는 것은 모방 행위의 완결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다를 아니다. 거울-경계의 존재로 인해 주체는 스스로와 타자의 모방 행위에 대한 복합적 자각이 가능해지며, 그렇기에 결코 거울-경계 너머의 존재, 즉 식민지의 타자와 합일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48) 심초매부 역시 조선인들 틈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일본인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심초매부의 집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 우선 심초매부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그의 집 문패의 글자가 닳아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는 오랫동안 조선의 땅에 거주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심초매부로 대표되는 재조일본인들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작가는 타자로서의 그들이 명백하게 식민지 경성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이제 쉽게 감각되지 않을 만큼 식민지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배의 역사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삶

심초매부는 조선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화가이며, 중심 서사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염상섭 소설에는 이러한 조력자형 예술가-일본인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식민지 조선(인)의 예술·문화·생활양식에 호의적이면서도 언제나 일본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잃지 않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sup>49)</sup> 작가는 이들이 “(귀로는 조선말을 들으나 입으로는 일본말)” 하는 모습을 서술함으로써 식민지배자-일본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무)의식적 태도를 강조한다.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어는 점차 식민지배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조선인을 가장 명확히 식별하는 정체성 구분의 표지로서의 힘을 잃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초 일제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천명했던 논리, 즉 일선용화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식민지배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금 ‘사이의 경계’를 공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식민지배자의 자의식은 언어 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목격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어를 말하는 것이 ‘식민지 공용어’로서가 아닌, 철저하게 ‘지배 언어’로서의 일본어를 말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이를 통해 발화 행위에 수반되는 권력 획득의 메커니즘 속에서 확고한 주체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염상섭은 민족적 표지를 ‘소거하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식민지배자의 이중적 욕망이 결합하는 장면을 그려내면서, 일본어 사용의 문제가 식민지배자 일본(인) 표상 방식과 맞닿아 있는 점을 강조한

에 은밀하게 ‘틈입’하고 있음을 그려내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49) “더구나 그는 조선사람에게는 입밖에도 내지 않으나 속으로는 은근히 자랑하는 <야마도다마시이>의 소유자라 한다.” (염상섭, 『사랑과 죄』, 『동아일보』, 1928. 3.8.)

다. 특히 소설 속 일본인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 발화되는 내용이 식민지배체제를 향한 반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사랑과 죄』의 심초매부의 입을 통해 해죽집 일당에게 “가택침입죄”를 묻고 “강도단”이라 비판하는 장면은, 앞서의 리해춘의 가택수사 사건과 맞물리며 상당히 아이러니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일본인 심초매부의 입으로 그것이 ‘붓들려갈 죄’이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강도단’과 다름없다고 지적되는 것은 실상 제국경찰로 상징되는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조롱에 다름 아니다.<sup>50)</sup>

이러한 면모는 『이심』 속 좌야를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인 좌야의 혀로 발음되는 조선말의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앞선 작품들에서 그저 ‘유창하게 조선말 한다’라는 서술을 통해 다소 간략하게 처리하던 일본인의 조선말 능력에 관한 묘사가 변화되는 지점이다.

그러자 좌야는 히긋스희긋스 반칙이 된 웃수염을 부르르 썰면서, 비교덕 류창한 조선말로 소리를 씹씩질은다.

“그짜위 보릇없는 말이 오대 잇소? 이놈아! 춘자하고 너하고 오써케 되니?” …(중략)… 이 늙은 일본사람은 부푼 성미에, 서투른 조선말을 집어치우고, 일본말로 퍼붓듯이 호통을 한다.”<sup>51)</sup> (강조-인용자)

좌야의 조선말 발음을 그대로 기입하여 그 이질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인 조선어 발화자의 발음이 텍

50) 심초매부에게서 감지되는 수탈자-일본인의 표상은 『이심』에서 보다 정형화·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좌야라는 이름의 한자어 ‘佐’에는 ‘돕다, 도움을 준다’의 의미가 담겨있는데, 소설 전반에 걸쳐 살펴보면 ‘돕는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춘경을 착취하는 좌야의 모습이 극대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식민지배를 마주하는 식민지배자-일본인, 피식민자-조선인의 문제로 상징화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51) 염상섭, 『이심』, 『매일신보』, 1928. 10.30.



스트 내에 기입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타자로서의 일본어를 시각적 차원에서 감각하게 하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습은 언어 권력을 텍스트 상에서 ‘해체’하는 글쓰기 전략으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일본어 상용자의 권위를 뒤틀리게 하는 힘을 가진다. 일본어 발화 행위는 식민지 조선에서 언제나 제국을 대리하여 체제 질서를 도모하는 권력이며, 일본어 발화자 역시 체제 내의 강력한 주체로 정립될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 하지만 반대로 제국의 구성원들이 피식민지의 ‘불완전한’ 언어 발화자가 되는 상황은 식민지 언어 체제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제가 된다. 식민지의 모어를 장악하려 했지만 결코 장악할 수 없는, 두 언어 사이의 경계가 감각되는 모습이 남겨질 뿐이다.

이러한 모습은 뒤이어 발표되는 『광분』(『조선일보』, 1929.10.3~1930.8.2)에 와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광분』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일본어 대화 장면이 그려질 때 등장인물의 ‘일본어 발음’을 소리 나는 그대로 ‘조선어’로 기입하는 데에서 발견된다. 앞서의 두 소설의 경우 일본어 표기 그대로를 소설 내부에 기입함으로써 텍스트의 시각화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면, 『광분』은 조선어를 ‘읽고 말할’ 줄 아는 (피식민자 조선인) 독자들에게 의해 일본어가 ‘말해지고 들려지게’ 되는 효과를 산출한다.

“네, 센세이, 와타시 고레노무와요. 이이고도? (이거 보세요. 선생님, 난 이거 먹어요. 괜찮지요?)”<sup>52)</sup>

“오도-스상! 오도-스상! 아다시, 부다이니, 데데모, 이이테쇼? 네-?” 경옥이는 별안간 다시 일본말로 해기 어려운 청을 한다는 듯이 어리광처럼 웃어가며 한마디씩 씩씩해서 이러케 무렵다. 무대에 녀배우로 나서겠겠다는 청이다. “마, 오마에상까?”

52)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10.13.

(별소리를! 네가 정말?)” 남편이 까 웃기만 하는 동안에 숙영이는 눈썹을 찡그리며 놀란 듯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중략)… “이이와네-, 네-상! 혼쫓, 앓테미루, 오쓰모리? (조쿠료, 형님! 정말 해보실 작덩?)?”<sup>53)</sup>

“살 도리? 우소! 우소! 우소쓰끼!(그짓말! 그것말! 그것말쟁이!) 잔쫓 싯데 싯테루와요!(내, 다 알아요!)”하며 경옥이는 눈으로 남자를 꾸지졌다.<sup>54)</sup>

“오메데도-스구 오다씨아소바세” 전문은 간단하였다. 곧 오라는 것이었다.<sup>55)</sup>

일본 유학파인 성악가 경옥은 유창한 일본말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로서, 『광분』에는 경옥을 중심으로 발화된 일본어 대화 장면이 자주 발견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 등장인물들의 일본말이 발음 나는 그대로 텍스트상에 기입되고 이에 대한 번역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특징은 앞선 소설들에서의 특징, 즉 타자화된 기호로서 시각화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발견되는 식민본국 일본(인)에 대한 감각을 환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국의 언어가 피식민자의 입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조선말을 읽고 말할 줄 아는 이들이라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제 식민본국의 모국어의 발화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통해 언어 위계질서의 전복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려낸다. 물론 이들의 일본말 능력이 고급 회화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선융화’의 가치를 천명하는 일제당국

53)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10.14.

54)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29.10.17.

55) 염상섭, 『광분』, 『조선일보』, 1930.2.25.

의 ‘표면적’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피식민자로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문제적 장면이 된다.

한편, 일본어 발화 장면이 발음 그대로 기입되는 것과 연관지어 『광분』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작품이 ‘조선박람회’와 ‘광주학생운동’ 화소를 다룸으로써 3.1 만세운동의 기억을 소환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의 목소리를 재현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기운〉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박람회 개장식 당일, 학생들의 집결 행위는 그 자체 식민지배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되는데, 바로 피식민자들의 목소리는 ‘사건’ 관련 서사 내내 ‘의미를 알 수 없는 “으얏” 소리’로 구체화될 뿐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말은 소설 속에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언어로 체현 혹은 ‘번역’되어 설명되지 않으며,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소설 내부의 ‘소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실상 작가가 의식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소설적 특징이라 여겨지는데, ‘박람회’라는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제국의 ‘공식적’ 선전 언어에 대응하여, 식민지 내부로부터의 저항 운동의 목소리를 ‘언어화되지 않는’, ‘번역되지 않는’ 소음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오히려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으얏” 소리들로 형상화되고 있을 뿐인 식민지의 목소리는 박람회를 통해 일체의 체제·기술·문명을 선전하려는 제국의 목소리를 교란시킨다. 특히나 그 어떤 명확한 제국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식민지의 목소리(“으얏”)는 맹렬하게 타올라 식민지배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작가는 박람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식민지 경성 안에서 가장 분주한 자들이 바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네들”, 즉 식민지배자로 상징되는 제국경찰들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초조함이 극대화되는 장면을 포착한다. 아래로부터의 식민지의 목소리를 억압·지배해야하

면서도, 그것이 결코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체제 저항의 가능성이 발현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작가는 식민지배체제 속에서 목격되는 제국-식민지 사이의 역학관계를 내파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한다고 여겨진다. 염상섭이 소설 쓰기를 통해 그려내고 있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중)언어 사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인)의 현실·사회·역사에 대한 감각을 끊임없이 예각화하려는 문제의식에 다름 아니다.

이상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염상섭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어 발화 장면이 텍스트에 기입되면서, 그것이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변모되는 과정이 발견되는 점이다. 『만세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어 사용 현실에 관한 작가의 인식이 침해해지고, 그것이 ‘번역’ 행위에 대한 서술로 구체화된다. 『사랑과 죄』, 『이십』에서는 와서는 타자의 언어 텍스트로서 ‘보여지는’ 측면이 강조되며, 대화의 내용보다는 발화 상황이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이제 직접 ‘말해질 수 있는’ 일본어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표기법의 문제에 천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히려 발음 그대로를 텍스트에 기입하는 이 방식은 작가 염상섭이 식민지 언어정책에 균열을 가하려는 소설 쓰기의 전략이다. 모국어-조선어와 국어-일본어가 강제되어 함께 놓여져 있는 식민지 조선의 이중언어체제 속에서 염상섭은 대담하게 일본어를 ‘보고 듣고 말해지는’ 것으로 재현한다.

56) 진태와 경옥이를 붙들어 파출소로 우선 데려간 뒤, “엎드러지면 코 닿을 경기도 청”으로 가는 데에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이유에 대해 작가는 명확히 “군중이 무서워서”라는 서술을 덧붙인다.

## 5. 결론을 대신하며: 일본어-전유 공간의 창출과 현실 인식의 후퇴

192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도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는 여전히 불안정한 외국어의 위치에 놓여있었다. “자연의 국어, 즉 조선어”<sup>57)</sup>에 대한 피식민자들의 감각은 견고했고, 이러한 식민지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제국에 대한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식민지 조선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일본어의 위력을 희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언어정책은 보다 견고한 방식으로 ‘타자화되어야 하는, 나를 닮은 타자’를 향해 수행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번역’ 행위로서, 그것은 일본어로 번역되는 조선인의 말과 글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제영역을 세밀하게 알아나가며<sup>58)</sup>, 동시에 조선 사회·문화 전반에 일본어가 스며들도록 하는

57) 안재홍, 『조선인과 국어문제』, 『민세안재홍선집』1, 지식산업사, 1989, 109면; 정종현, 『식민지의 목소리』, 『한국학연구』 제48집, 2018, 159면 재인용. 『조선급조선민족』에 실린 이 글은 소재목 한 장 전체가 삭제되었는데, 단순히 조선어 교육의 축소에 대한 비판 때문이 아니라, 조선어를 ‘국어’로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종현에 따르면 이 글은 1925년 5월 28~29일 양일간 『조선일보』에 동일한 제목으로 연재되었을 것이라 추정되는데, 비슷한 논조로 ‘조선어=자연의 언어=국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또 다른 글이 1926년 5월 11일자 『조선일보』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조선인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또 세계문화의 발전을 자연대로 개방하기 위하여 조선의 아동의 사용 및 **자연의 국어**로서의 교육을 바들權利가 있음을 역주하는 바이다.”(강조-인용자, 『시평-조선인과 교육문제』, 『조선일보』, 1926.5.11.)

‘조선어=국어’에 대한 감각은 1930년대에 이르러도 여전히 확고부동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어의 방언과 표준어 문제를 다룬 이극로의 글에서도 조선어는 “2,000餘萬人的 혀끝에 살아서 날로 움직”이는 조선인의 “半千年이 된” “국어(國語)”로서 명백히 호명되고 있다.(이극로, 『조선말의 사투리』, 『동광』, 1931.12.27, 12면)

58) 일제시기 제조일본인에 의해 다양한 일본어 매체들(『경성일보』, 『조선공론』, 『조선급만주』, 『조선시론』, 『조선급조선민족』 등)이 간행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

이중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식민자들을 ‘포섭하면서 배제하기’ 위한 지배 전략에 다름 아니다.

작가 염상섭에게 있어 조선어 글쓰기 문제는 “同族을 爲하여 記錄코저 할”<sup>59)</sup> 그 어떠한 사명과 연계된 작업이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 언어 사용의 문제에 관한 첨예한 문제의식으로 형상화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글쓰기 전략은 1930년대에 접어들며 다시 한 번 새로운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작 『삼대』(『조선일보』, 1931.1.1.~9.17)와 이후 발표하는 『무화과』(『매일신보』, 1931.11.13~1932.11.12)에서 작가는 여전히 식민지 이중언어 발화 상황에 관해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서의 작품들에서 다뤘던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구체화되는데, 일본어가 단일언어로서 전유되고 있는 문제적 공간을 거점으로 삼아 언어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또 다른 장면을 다루고 있다. ‘정체가 의심되는’ 인물들을 산출하는 문제적 공간과 그곳에서의 ‘주의자’들의 서사가 형상화되는 것이다.

『삼대』의 ‘산해진(山海珍)’은 주의자 김병화가 생활인의 가면을 쓴 채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해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산해진’의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카페 “바커스”를

(인)의 사상이 탐구된다. 이 가운데 『조선공론』의 창간호 발간사는 “조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실상을 이해하게 하고 동시에 재선(在鮮) 동포를 각성케 하”겠다는 간행 취지를 밝힌다. (發刊の辭 『朝鮮公論』 第1卷第1号, 1913.4. 25頁; 김청균, 『일본어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1913-1920)의 에세이와 한국인식』, 『翰林日本學』 제18집, 2011, 102면 재인용) 또한 伊藤韓堂에 의해 간행된 『조선사상통신』의 경우, “新聞紙規則에 依하여 認可되어 不遠發行하게 되었는데 右通信은 朝鮮에 對한 各種思想研究를 目的으로 每日發刊되는 朝鮮文諸新聞을 爲始하여 其他雜誌, 著述等에서 主要한 部分을 內地語로 翻譯하여 研究資料로 有志에게 供給하려함”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思想通信 發行認可』, 『매일신보』, 1926.4.28.

59) 염상섭, 『學生文壇』의 本意-投稿 諸君에게 囑望하는 바, 『조선일보』, 1929.10.10.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주의자 김병화는 각성의 계기를 맞이한다. 홍경애의 주선으로 그는 피혁과 만나게 되어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암시된다.<sup>60)</sup> 그런데 주의자 김병화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새출발〉장의 첫머리에서 드러나듯 열렬한 주의자였던 과거를 소거하고, 상점 배달원의 신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특히 그가 산해진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일본 사람’(“응! 일본사람이라면 일본사람이요…… 그야 우리는 일본 사람 아니요.”<sup>61)</sup>)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과거 자신을 감시하던 일본인 형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러한 김병화의 ‘변질’은 과거의 동지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게 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산해진의 공간적 위치와 구조 및 이곳에서의 김병화의 의심스러운 행동의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위장술’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산해진은 경성 속 ‘일본인 거리’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바로 그 종점에서 조금 내려오느라면 산해진(산해진)이란 간판 부친 일본 식료품 상점-말하자면 일본 반찬 가게가 오른편 새로 진 일본집 틈에 있는데 그리만와서 나를 차즈우.”<sup>62)</sup>) 그 내부는 “다다미방을 뜯들어서면 발견되는 온돌방”의 이중 구조로 이뤄진 곳이다. 게다가 김병화가 이곳에 산해진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 거리가 일본인들에게 점령될까 염려된 까닭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마련된 산해진을 거점으로 하여 김병화는 반식민 저항운동

60) 카페 바커스에서 일복을 한 채 (일본인 손님들과) 일본어로 대화하는 홍경애는 “아이상”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린다. 이런 홍경애는 의심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는데, 특히 그녀가 내보이는 위악적 태도로 말미암아 덕기와 김병화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홍경애는 김병화와 피혁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그가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매개한다.

61)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6.15.

62) 염상섭, 『삼대』, 『조선일보』, 1931.6.15.

(폭탄 제조)의 뒷배를 보아주기 위한 활동에 착수할 수 있다.

『삼대』의 시퀀이라 할 수 있는 『무화과』의 카페 ‘보도나무’ 역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산해진’의 후신(後身)에 해당하는 ‘보도나무’를 중심으로 주의자들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된다. 보도나무의 주인이라고 알려진 조선인 최원애는 ‘산해진’의 김병화처럼 과거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했었지만 현재는 ‘변질’하여 일본인 안달외사(安達外史)의 후원을 받아 보도나무를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현재 상해에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는) 주의자 김동국의 옛애인이자 동지였던 최원애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해 경멸적인 시선이 따라다닌다.<sup>63)</sup> 이는 카페 ‘보도나무’가 드러내고 있는 ‘정체가 모호한’ 그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버드나무라는 조선말을 일본어로 ‘취음’한 ‘보도나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 이 공간은 일본인·일본어가 전유되는 문제적 공간이다. 이곳의 계집들은 일본인/조선인 반반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조선인 계집들에게서 민족 정체성(조선인)의 표지는 소거되어 있다. 이들은 “양장 아니면 일복”을 하고 있으며, 모두 일본식 이름(길순→나미짱)으로 불린다. 게다가 일본말을 모르는 손님이 찾아와도 이들은 “조선말은 간신히 의사소통이나 될 만큼 반씩반씩 잘라서 엮겨쓰”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문제적 공간에서 언제나 주의자들의 흔적이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 최원애는 ‘누군가’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돈을 마련하며, 원태섭에게 ‘김동국이 있는’ 상해에 가볼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최원애에게는 ‘맛짱’이라는 인물에 의한 감시

63) “원순(현순의 오타-인용자)이의 말에는 다소 독기와 경멸이 품기었다. 형님이 라는 것은, 예전 김동국이와 활동하던 시절에 붙으든 존대지만, ‘카페-, 보도나무’의 주인, 지금의 최원애는, 현순이의 눈에는, 뿌르조아의 성욕 괴구박게 아 모것도 아니라고 내심으로 멸시하는 것이었다.”(염상섭, 『무화과』, 『매일신보』, 1931.12.27.)



의 시선이 항상 따라붙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맛짱의 감시는 ‘어느 누구’의 역할을 대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술자에 의해 맛짱이 형사들의 *끄나폴·스파이*(64)이거나 혹은 안달외사의 사주를 받아 최원애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의혹(65)이 제기되고, 여기서 안달외사와 제국경찰은 ‘식민지배자 일본인’ 표상이라는 범주로 함께 호명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안달외사의 정체를 설명하는 구절을 통해 그가 “언론계와 정변에 은연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상 제국경찰의 “스파이(비밀탐정)”일지도 모른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본인-맛짱과 조선인-나미짱의 대립 구도는, ‘(맛짱→안달외사→)제국경찰’과 ‘(나미짱→최원애→)주의자’ 사이의 대결 구도로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삼대』와 『무화과』는 ‘산해진’과 ‘보도나무’라는 문제적 장소를 경유하여 식민지 조선에서의 새로운 저항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의자들의 서사를 그려낸다. 비록 『무화과』의 결말이 다소 우울한 비전으로 수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게나마 감지되는 ‘다음 세대에의 희망’(김봉익, 김완식)을 통해 『삼대』로부터 출발한 문제의식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이러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은

64) “나미짱은 여기서 행세하는 일흠이요, 제 본일흠은 길순이라고 하는 조선 계집애다. 이 처녀는 주인너편네가 동무의 천으로 데려왔기도 했고, 또 제일 귀해하는 눈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맛짱과는 맛지를 안했다. 저번 주인과 싸우든 날, 그 일본 형사와 이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자질한 것도 나미짱이었다.”(염상섭, 『무화과』, 『매일신보』, 1931.12.8.)

65) “(맛짱이 내뒤편을 밟는 것 갖해!)-이런소리를 원애의 입으로 여러번 들은 원영이는 자귀에게 보이는 호의도, 그런 종류의 것으로의심을 아니하는 수업섯든 것이다. 그러나 원애도, 안달외사가 뉘게인지 청을 들었다고 데려다두라고 한 것을,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임의로 엇저는 수도 업섯다. 안달외사의 말은, 부모가 업는 가업슨 여자라고, 동정해서 그러는 것이라 하지만, 엇더면 원애를 감시하느라고 갖다 둔 것인지도 모른다고, 원애 자신은 의심하는 것이나, 원영이는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한 추측을 하는 것이었다.”(염상섭, 『무화과』, 『매일신보』, 1932. 2.23.)

무더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백구』 『모란꽃 필 때』 『불연속선』으로 이어지는 일제강점기의 후기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본어-조선어 사용 양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미해지는 것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이 작품들은 중심인물들의 서사가 식민본국 일본을 경유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일본은 더 이상 인물들의 각성·자각·의식 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자극’도 주지 않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선에서의 생활과 식민본국의 수도 동경에서의 삶이 ‘이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모습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작가 염상섭의 현실인식이 둔감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의 소설들에서 민감하게 드러나고 있던 ‘번역되고 있는 제국의 언어’에 대한 감각이 더 이상 문제적인 것으로 인지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연속선』의 연재를 마친 후 염상섭이 만주행을 선택한 데에는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후퇴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후기 작품들에서 ‘과거 없음’이란 모티프가 자주 발견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특히나 사회주의자였던 인물들의 과거 행적·의식 등이 소거된 채 현재의 생활에 침잠하는 모습이 형상화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과거·역사를 지우는 문제로도 확대되며, 이제 인물들의 빈 과거를 채우는 것은 일상·세태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은 작가 스스로에게도 민족·역사·현실에 관련된 문제의식이 더 이상 소설 쓰기를 추동하는 핵심 원동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만주행을 선택한 이후 염상섭이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창작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채 문학적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시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염상섭의 소설들에서 다루고 있는 식민지 이중언어 체제와 텍스트 내 번역의 문제는 그의 작품이 리얼리즘 문학으로서 호명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기능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염상섭의 소설이 수준 높은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언어 문제를 매개로 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총체적 반영과 이를 통한 식민지의 ‘리얼한’ 민낯을 마주하려는 염상섭의 치열한 소설 쓰기의 모습일 것이다.<sup>66)</sup> 식민지 이중언어체제의 현실이 ‘지금-여기’의 문제로 날카롭게 기입됨을 통해 작가 염상섭은 식민지배체제의 민낯 그 자체를 마주하는 리얼리티의 힘을 소설에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염상섭의 소설들은 근대문학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리얼한’ 문학적 진실을 내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66) 물론 이와 같은 이중어 사용의 문제가 염상섭 소설에 국한된 문제의식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파편적인 모습으로나마 이광수, 김동인, 채만식 등의 소설에서도 이중언어 사용에 관한 화소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광수의 경우, 몇몇 작품들에서 인물들의 이중어 서술 장면이 발견되고 있으며 상당히 초기부터 일본어로 작성된 작품도 다수 발표한 만큼, 이광수 문학의 일본(인) 표상과 관련된 이중언어 서술 등의 특징 역시 상당히 문제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주제이다. 다만 이광수에게 있어서 이중언어 글쓰기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 반영이라는 측면보다, 자기 ‘증명’(근대적 의미의 문학 제도로의 진입 욕망, 대일 협력 정책의 적극적 반영 등)을 위해 취사선택 되는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또한, 이 글은 리얼리즘 문학이라 명명될 수 있는 작품 분석에 집중하여 일제강점기 문학의 리얼리티의 문제를 탐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여, 염상섭 개별 작가의 작품 분석에 그치며 다채로운 작가의 작품 연구로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 근대문학에 나타나는 이중언어 서술 장면에 대한 연구는 보다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포함한 근대문학 전반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염상섭, 『만세전』, 고려공사, 1924.

염상섭, 한기형·이혜령 편, 『염상섭 문장전집』 1,2, 소명출판, 2013.

김동인, 『김동인전집』 3, 조선일보사 출판국, 1988.

『동광』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 2. 논문

권보드래, 「1910년대 이중어 상황과 문학언어」,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2010, 5-43면.

권영오, 「칠원공립보통학교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역사와경계』 제69집, 2008, 251-292면.

김경미, 「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3집, 2008, 41-74면.

김민정, 「리얼리즘의 강박, 증상으로서의 리얼리티: 리얼리즘의 재인식과 전망의 모색」, 『민족문학사연구』 제54집, 2014, 299-327면.

김지영, 「‘조선적인 것’의 변주, 그 속에 감춰진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 장혁주의 일본어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2013, 75-110면.

김청균, 「일본어잡지 『조선공론(朝鮮公論)』(1913-1920)의 에세이와 한국인식」, 『翰林日本學』 제18집, 2011, 101-119면.

박정환, 「프로이센-독일과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 비교 : 포젠, 조선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68권, 2015, 185-202면.

박화리,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국어정책: 중등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34집, 2014, 127-167면.

오태영, 「다이글로시아와 언어적 예외상태」, 『한국어문학연구』 제54집, 2010, 99-133면.

유병석, 「廉想涉 前半期 小説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5.

유승환, 「김동인 문학의 리얼리티 재고: 비평과 1930년대 초반까지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2집, 2007, 101-143면.

- 윤대석,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 글』 제57집, 2013, 341-364면.
- 윤미란, 「어느 피식민자의 자기성찰 : 장혁주(張赫宙)의 『나의 풍토기(わが風土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22집, 2010, 137-158면.
- 이재봉, 「김사량의 서사 전략과 조선/일본 사이의 글쓰기 :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를 중심으로」, 『코기토』 제84호, 2018, 245-284면.
- 이혜령, 「식민지는 말해질 수 있는가: 염상섭 소설 속 식민자의 환유들」, 『大東文化研究』 78호, 2012, 317-353면.
- 정종현, 「식민지의 목소리」, 『한국학연구』 제48집, 2018, 145-168면.
- 차혜영, 「1930년대~1940년대 ‘식민지 이중언어문학 장’: 국가와 시장을 둘러싼 언어선택과 문학제도의 재편에 관한 고찰」, 『상호학보』 39집, 2013, 121-176면.
-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일본어 소설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현대소설연구』 제43호, 2010, 35-78면.
- 최주한, 「일제 말기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시론」, 『춘원연구학보』 제6호, 2013, 209-229면.
- 한만수, 「식민지 시기 근대기술(철도, 통신)과 인쇄물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32집, 2007, 57-91면.
-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전후세대의 이중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8호, 2007, 257-301면.
- 황중연, 「과학과 반항: 염상섭의 『사랑과 죄』 다시 읽기」, 『사이』 통권 15호, 2013, 87-133면.
- 황호덕, 「경성지리지, 이중언어의 장소론: 채만식의 ‘종로의 주민’과 식민도시의 (언어) 감각」, 『대동문화연구』 51권, 2005, 107-141면.
-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聰明), 「한국 통신검열체제의 기원」, 『아세아연구』 통권 143호, 2011, 155-191면.
- 미쓰이 다카시(三ツ井 崇), 「‘언어문제’에서 본 한국 근대사: 교육 정책과 언어운동의 측면에서」, 『한국학 연구』 제22집, 2010, 441-477면.

### 3. 단행본

- 박헌호, 「문화정치시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검열연구회 편, 『식

- 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2006.
-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 정백수, 『한국근대의 식민지 체험과 이중언어 문학』, 아세아 문화사, 2000.
- 한수영, 『친일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5.
- 미우라 노부타카(三浦信孝)·가스야 게이스케(糟谷啓介) 편, 이연숙·고영진 역, 『언어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돌베개, 2005.
- Bakhtine, M and Volosinov, V , 송기한 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 Cronin, Michael, 김용규·황혜령 역, 『번역과 정체성』, 2010.
- Derrida, Jacques, (translated by Patrick Mensah), *Monolingualism of the Oth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Fanon, Frantz, 홍지화 역, 『알제리 혁명 5년』, 인간사랑, 2008.

<Abstract>

## The language of the empire being ‘translated’ and Challenges to colonial diaglossia

Kim, Hee-Kyung

This article attempts to begin a discussion from a question, “Is it true that Korean modern novels, which we call ‘realism literature’, are in fact supporting ‘realit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questio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realism more precise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language’ of Japanese-colonial period, more specifically, the issue of Korean/Japanese diaglossia speech scenes and ‘translation’.

It can be judged that the use of language in the colony Joseon was always in a diaglossia situation from its starting point. The use of the language in colony could not be definitively defined through monolingual policy, which would inevitably provide for their ‘dialogic space’ in a situation where two languages coexist. It is beyond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residence space of Korean / Japanese people was clearly separated and that they could not physically face each other easily. It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the linguistic reality between the Japanese literally written as ‘system’ in the colony and the Korean still existing as ‘native language’.

The subject of utterance in the diaglossia dialogic space implies the possibility of interfering with the Korean/Japanese language field and



disturbing, threatening, and overturning the hierarchical order between the colonizer-Japanese and the colonized-Korean. ‘Man in power’-Japanese or ‘imitator’-Korean all can be called as a subject who can speak Japanese. At the same time, the Japanese who can speak Korean can be found. Taking a complex view of these relationships can lead to a more interesting perspective in relation to the ‘translation’ of the Japanese dialogue scene in this period.

From that point of view, the novels of Yom Sangseop are in a very problematic position, in that they are sensitive to the use of language in colony and try to portray it continuously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urthermore, these features are related to the matters for representation of the Japan(ese) in the novels of Yom Sangseop. Therefore, in Yom Sangseop’s novels, the colonizer-Japan(ese) can be embodied as ‘being able to be spoken’. Thus, it can be judged that, for Yom Sangseop, language function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mechanisms to sense the reality of the colonized society.

Key words: Yom Sangseop, diaglossia, translation, reality of literature, dialogic space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9년 6월 26일